6.15주간

주체90(2000)년

6.15WEEKLY

김일성주석님 서기 7주기 특집호



노작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한민전 중앙위 공보
주체연호 제정에 대하여

결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며

조국통일3대헌장
김일성주석님의 명제
김일성주석님의 약력

대담
주석님과 민족통일전선

6.15주간
6.15WEEKLY

김일성주석님 서거 7주기
특집호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며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들은 주석님을 향한 사무치는 절절한 그리움과 가장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오늘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한편 하루빨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조국통일위업을 달성하겠다는 충성의 맹세를 다집니다.

전 세계가 최대의 슬픔을 겪은 지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만민은 경애하는 주석님의 태양위인상을 심장 속에 더욱 깊이 아로새기게 되었으며 그간 주석님의 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충효도덕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태양이시고 태양조선의 시조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이 세상 어느 위인도 이룩할 수 없는 불멸의 대위업을 달성하신 수령 중의 수령, 위인 중의 위인이십니다.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시대의 유일무이한 향도이념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하심으로써 인류사상사에 영세불후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으며 수억만 인류에게 참다운 생명,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었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총대중시사상으로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맞서 연전연승하시는 세기적 기적으로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하시고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었으며 일제를 타도하시고 미제를 내리막길로 끌어내리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위대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복잡하고 간고한 사회주의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단 한번의 편향도 없이 현명하게 영도하심으로써 진보적 인류가 한결같이 경탄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이민위천의 지상낙원을 건설하시었습니다.

국제적 수령이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 모범을 창조하시고 주체의 과학적인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제시하시며 탁월하게 향도하심으로써 인류의 반제자주투쟁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달성하시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관되게 조국통일노선을 견지하시고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며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를 강화하시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승리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최고업적은 바로 수령승계문제의 빛나는 해결로서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 풍모 그대로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이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 계시는 충신중의 충신, 효자중의 효자이십니다.

인류의 영재이신 위대한 사상이론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가 전진도상에서 일대 시련과 곡절을 겪고 있던 시기,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회주의사상을 옹호하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인류혁명사에 영원불멸할 사상이론적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오늘의 **김일성**장군님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최강의 선군혁명전략으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시고 미제국주의를 완전히 굴복시키시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었으며 주체사회주의를 발전시키시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확고히 전망할 수 있는 대위업을 달성하시었습니다.

특히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48년 연석회의와 7.4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감격적인 평양상봉을 이룩하시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천명하심으로써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할 수 있는 민족대단결의 신기원을 개척하시었습니다.



이남민중은 오늘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신데 이어 남북최고위급회담을 통해 주석님의 통일위업을 기필코 우리 대에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절대위인상에 탄복하는 한편 장군님의 영도따라 통일강성대국을 하루속히 건설하겠다는 애국의 열정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주석님과 장군님의 충직한 전사, 제자들이며 한민전의 향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유훈을 높이 받들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광장에 높이 모실 감격의 그날을 앞당기겠다는 열화같은 맹약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민족통일전선전략을 관철하는 것을 통일변혁의 기본열쇠로 보고 6.15공동선언실현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방향에서 올해 제기된 변혁과업을 수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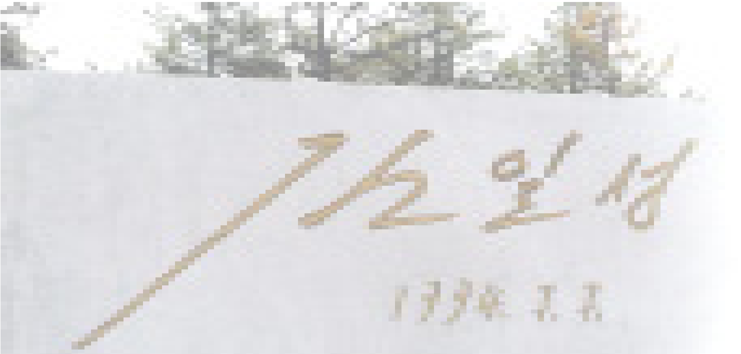
우리들은 당면해서 민족통일전선촉진운동을 군중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내외 반통일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결정적으로 추동하며 일상적 반미대중투쟁을 완강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청년주체주의자들을 열혈의 김혁, 신념의 차광수, 혁명가 김책으로 육성할 것이며 온 나라에 주체사상학습열풍이 휘몰아치고 지도핵심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장성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만수무강은 우리들의 절대염원입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동지들과 이남민중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주석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한민전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7월 8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정일총비서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1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100일이 되였습니다. 지난 100일동안은 우리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었으며 얼마나 큰 수령복을 누려왔는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한 력사적인 나날이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에도 언제나 수령님의 위대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지만 수령님을 잃고보니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한분이시였는가 하는것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온갖 시련의 고비를 넘고넘으시며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시면서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신 시기를 내놓고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을 령도하신 력사만 해도 반세기입니다. 수령님께서 한해만 더 계시였어도 조국해방 50돐과 당창건 50돐을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게 맞이하겠는데 애석하게도 1년을 앞두고 서거하시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처럼 50년동안 당과 국가의 수반으로서 당과 국가, 인민을 이끄시여 그처럼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인류력사와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 가장 위대한 공적으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정말 수령님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현명한 령도로 현대력사를 빛내이신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사전략가, 위대한 령도예술가이시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은데 대하여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령도자이시였을뿐아니라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으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훌륭한 인민으로 키워주시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끝없이 사랑하시였으며 고귀한 모든것을 인민이라는 이름과 결부시키시였습니다. 우리 나라 국호에도 인민이라는 말을 넣고 군대의 이름에도 인민이라는 말을 넣으시였으며 대학습당과 문화궁전도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이라고 부르고 병원들도 인민병원이라고 부르도록 하시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끝없이 인자하고 겸허하신분이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지난 7월 6일 나에게 전화를 거시여 당의 의견을 받자고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내가 수령님께서 결심하시면 당에서는 그대로 할것이라고 말씀드리니 수령님께서는 그러면 당에서 승인한것으로 보고 활동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그날 나에게 거신 전화가 나와 하신 마지막전화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날의 일을 미리 예견하신것처럼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생을 마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80고령이시였지만 최근 몇해사이에 항일혁명투사들을 다 만나주시고 남조선혁명가유자녀들을 비롯한 혁명가유자녀들도 만나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을 쓰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연고자들을 다 찾으시고 국내에 있는 연고자들은 물론 해외에 있는 연고자들까지 불러 만나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가유자녀들과 연고자들을 만나실때마다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의 덕택으로 건강하다고 하시며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연고자들에게 몸소 손목시계도 채워주시면서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기념촬영도 많이 하여주시였습니다. 올해에만도 전국농업대회 참가자들과 전국석탄공업일군대회 참가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근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에 여러 부문 일군들을 만나시고 많은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4월 25일에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만나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는데 그 교시가 인민군대에 주신 수령님의 마지막유훈입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을 잘 받들데 대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 농업부문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으며 돌아가시기직전인 7월 5일과 6일에는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올해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여 대외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으며 미국 전 대통령 카터를 만나시여 조미회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조국통일문제를 내놓고는 모든 문제를 깨끗이 마무리하시였습니다. 조국통일문제도 멀지 않아 해결할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놓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지금 갈라져 살고있지만 멀지 않아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참으로 수령님께서는 모든 부문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시고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 영원히 지울수 없는 여운을 남기고 돌아가시였습니다.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시고 돌아간 령도자는 없을것입니다.

수령님께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시였는데 심장병을 앓으신지는 여러해 되였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이 걱정할것 같아 수령님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습니다. 수령님께서 올해에는 눈병까지 앓으시여 신년사를 하실 때에 잘 보이지 않아 원고를 들고 힘들게 읽으시였습니다. 그래서 눈수술을 받으시였습니다. 젊은 사람도 그런 수술을 받으면 한달나마 쉬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눈수술을 받으면 한달나마 쉬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눈수술을 받으신지 며칠 안되여 손원태를 만나시였고 이어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에 참가한 학생소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후에는 우리 나라에 찾아온 카터를 만나시였고 다른 나라 대표단도 만나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동적으로 제기할 정치경제적문제들을 친히 구상하시였으며 문건도 많이 보아주시고 온천군과 평양시주변 농장들을 현지지도까지 하시면서 긴장하게 사업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심장병으로 여러해 앓으시였지만 병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신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80이 지난 고령이심에도 이처럼 초인간적인 정력으

로 끊임없는 활동을 벌리시다보니 수령님의 심장병이 더 심해지게 되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처럼 80이 넘도록 정력적으로 사업하다가 돌아간 령도자는 세상에 없을것입니다. 수령님께서 그렇듯 인민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다가 너무나 갑자기 서거하시였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이 더 가슴아파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다가 집무실에서 돌아가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서거는 순직입니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며 마무리를 깨끗이 하고 돌아가신 령도자는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 한분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도 수령님은 정말 위인중의 위인이시였습니다. 수령님은 그 어느 위인과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습니다.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과 뛰여난 인품, 소탈한 품성과 검소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와 거룩한 영상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특출한 위인상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수령님은 위인으로서의 천품을 타고난 위대한분이시라는것을 더욱더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령님이 얼마나 위대한분이시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글을 많이 써서 인민들에게 알려주고 대대손손 길이 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경모의 마음이 뜨겁게 발현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들에게 참다운 행복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을 잊지 못해하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수령님을 잃은 비통한 마음과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의 동상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이 낮에 밤을 이어 그칠사이가 없었으며 남녀로소 할것없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상제가 되여 수령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수령님을 끝없이 추모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며칠째 되는 어느날 내가 시내를 돌아보면서 만수대동상쪽에 가보았는데 교양마당에서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비가 내리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령님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있었으며 교양마당의 계단아래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들가운데는 화환을 드리려고 차례를 기다리는 한 댓명의 청년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온몸이 비에 흠뻑 젖었지만 웃옷을 화환에 씌워 화환이 비에 젖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한참동안 보면서 청년대학생들의 소행이 너무도 기특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새 세대 청년들이 이렇게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하니 격해지는 마음을 어찌할수 없었습니다.

오늘 수령님의 서거 100일중앙추모회가 끝난 다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하고 나오면서 보니 추모회에 참가하였던 가정부인들이 금수산의사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마 수령님을 뵙고싶은 마음을 누를수 없어서 그랬을것입니다. 어제밤에도 평양시안을 돌아보면서 만수대언덕쪽으로 가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비가 내리는데도 수령님의 동상에 계속 찾아오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찬비를 맞는것이 가슴아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한 일군을 전화로 찾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번 애도기간에 세상사람들에게 조선인민이 어떤 인민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자기 수령에 대한 례의도덕을 지킬줄 아는 숭고한 도덕관을 지닌 인민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수령을 흠모하고 받드는 사상감정과 정신도덕적풍모가 세계 그 어느 나라 인민들과도 대비할수 없이 고상한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처럼 훌륭한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복을 누리고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속에서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켜나가고있는것은 훌륭한 인민을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수령님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에 대하여서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말할것도 없고 적들까지 탄복하고있습니다. 애도기간에 우리 나라에 왔던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 실업가들과 기술자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 기자들과 면담을 가지고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와 존경심을 지니고있으며 그이의 서거에 비통함을 금치 못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있다, 세상에서 이런 인민은 처음 본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씨엔엔텔레비죤방송과 일본의 엔에취케이텔레비죤방송은 우리 나라에서 전체 인민이 수령님을 잃은데 대하여 끝없이 슬퍼하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있는 모습을 널리 보도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가 으뜸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보고 적들은 우리가 훌륭한 인민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무서워하고있습니다. 영화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에서 적들은 우리 인민의 슬퍼하는 모습뿐아니라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원자탄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 인민과 같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인민앞에서는 그 어떤 대적도, 현대적인 무기도 맥을 추지 못합니다. 우리 인민은 정말 위대한 인민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민에게 ≪위대한≫이라는 말을 붙여야 합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인민이 그토록 비통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한데 대하여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인민복을 누릴수 있게 된것은 다 수령님의 덕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베푸시여 당과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서 일하도록 해주시였고 인민들을 교양하시여 수령을 알고 당을 아는 훌륭한 인민으로 키워주시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은덕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하며 훌륭한 인민을 가지고있는것을 크나큰 긍지와 영예로 간직하고 인민을 위하여 더 충실히 복무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확고히 간직하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그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십니다. 수령님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최고뇌수로서, 민족의 태양으로서 영생하고계십니다.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펴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십니다. 수령님을 떠나서 세계에 빛을 뿌리는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십니다. 지금 해외동포들은 조선민족을 **김일성**민족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민족의 자존심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더욱 잘하여야 합니다. 민족적자존심이 없으면 사대주의적이며 굴욕적인 력사가 되풀이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령도따라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해온 조선민족으로서의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숭고한 도덕관을 가지고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위업,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도덕적풍모는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셨으니 당과 국가 지도기관을 새로 구성하는 추대사업을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우리의 숭고한 도덕관의 견지에서 보아도 당과 국가 지도기관을 새로 구성하는 사업을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영화문헌 ≪위대한 생애의 1994년≫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4년은 수령님께서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혁명활동을 벌리신 마지막해입니다. 그런것만큼 1994년은 수령님을 애도하는 해로 하여야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애도기간을 100일이나 1년, 3년으로 하였습니다. 추대사업은 위대한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대로 영원히 모시는 사업을 해놓은 다음에 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령구앞에서 인민들이 목놓아울던 비분이 아직도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당과 국가 지도기관을 새로 선거하고 만세를 부르는것은 전사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체제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인민들은 자기 령도자에게 충성을 다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였지만 우리 인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꿋꿋이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이번 애도기간에 우리의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얼마나 공고한가 하는것이 힘있게 시위되였는데 이런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룩하여놓으신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수령님께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시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해놓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오늘의 시련을 이겨낼수 없을것입니다.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우리 당이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있으며 당의 령도체계가 튼튼히 서있는 조건에서 추대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추대사업을 놓고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만 머리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혁명의 한길로만 변함없이 걸어가야 하며 수령님의 위업을 수행해나가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관직은 어떻든 혁명만 하면 됩니다. 수령님께서 일찌기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항일혁명을 이끄신것이 조국이 광복된 다음 당총비서가 되고 국가주석이 되기 위하여 하신것이 아닙니다. 수령님께서는 오로지 조국을 광복하고 인민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20성상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자신을 수령님의 전사로 생각하여왔습니다. 나는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나 서거하신 지금이나 변함없이 수령님의 전사로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한 맹세와 서거하신 다음에 하는 맹세가 달라서는 안되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숭고한 도적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날이 갈수록 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하여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화환과 꽃다발을 드리고 조의를 표시하고있습니다. 나는 인민들의 념원대로 애도기간을 늘이고 계속 조의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인민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추모한 나날은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깊이 심어준 나날이였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이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변함없이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을 잘하면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참다운 공산주의도덕관을 세우는데도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도덕은 가장 순결하고 고상한 참다운 도덕입니다. 공산주의도덕에서 기본핵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지난 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 흐루쑈브와 같은 수정주의자들이 나타나 공산주의도덕을 심히 훼손시켰습니다. 흐루쑈브는 쓰딸린을 헐뜯음으로써 세상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선배도 모르고 서로 물고뜯는 사람들인것 같은 나쁜 인상을 주었습니다. 첫 사회주의국가의 창건자인 레닌도 사회주의배신자들에 의하여 7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모독당하고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제공산주의운동안의 다른 당들에서도 나타났으며 그것으로 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였고 결국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을 생존해계실 때보다 더 잘 그리고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심으로써 세상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도덕관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모셔야 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고상한 공산주의도덕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수정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에 의하여 어지럽혀진 공산주의도덕을 국제적범위에서 복구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오늘 중앙추모회에서 연설한 사람들이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지였는데 군대도 인민도 다 그 결의대로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처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하며 혁명과 건설을 철두철미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해나감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공산주의도덕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정치와 사상, 도덕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것과 함께 글도 많이 써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있는데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써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갈뿐아니라 리론선전을 강화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영화문헌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영화문헌은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위력한 사상교양수단입니다. 이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 1, 2, 3부와 ≪위대한 생애의 1994년≫을 비롯한 여러편의 좋은 영화문헌들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학습을 잘 조직하여야 합니다. 영화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 1, 2, 3부가 나왔을 때 해당 일군들이 그 영화문헌을 한꺼번에 학습시키겠다고 하는것을 내가 1부만 먼저 학습시키고 2부와 3부는 수령님의 서거 100일추모행사를 계기로 학습시키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한 결과 영화문헌학습이 아주 의의있게 진행되였습니다. 영화문헌 ≪위대한 생애의 1994년≫을 만들 때 수령님께서 지난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하신 교시가운데서 한부분을 육성그대로 편집해넣도록 하였습니다. 영화문헌에 수령님께서 하신 교시를 육성그대로 편집하여넣은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영화문헌 ≪위대한 생애의 1994년≫을 보면서 수령님의 교시를 육성으로 듣고 더 큰 감동을 받고있다고 합니다. 영화문헌학습과정은 영화문헌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영화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외국의 수반 및 저명한 인사들과 상봉≫은 1부와 2부가 나왔는데 앞으로 련속편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다른 나라 수반들을 비롯하여 7만명이 넘는 외국인사들을 만나 사업하시였는데 세계에는 이렇게 많은 외국인사들을 만나 대외활동을 벌린 령도자가 없습니다. 영화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외국의 수반 및 저명한 인사들과 상봉≫을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만들어 올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영화문헌에 대한 학습을 잘 조직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화문헌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는 수령님께서 나와 사업을 토의하시는 화면들을 가지고 만든것입니다. 영화문헌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에 수령님께서 ≪사향가≫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향가≫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부르던 ≪사향가≫입니다.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부르시던 중국노래 ≪소무가≫도 부르신적이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소무가≫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습니다. ≪소무가≫는 중국인민의 애국주의적사상감정을 반영한 노래입니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소무가≫의 가사를 찾으려고 애쓰시다가 몇해전에야 찾으시였는데 그때 너무도 기쁘시여 그 노래를 몸소 부르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사향가≫와 ≪소무가≫를 부르시는것을 록음한 테프를 내가 보관하고있는데 그것은 매우 귀중한 재부입니다. 수령님께서 ≪소무가≫를 부르시는것도 영화문헌에 편집하여넣으면 좋을것입니다. 인민들이 수령님께서 ≪소무가≫를 부르시는것을 보면 큰 감동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무가≫가 중국노래이지만 수령님은 위대한 국제주의자이시기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신것을 내보내는것이 좋습니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보천보전자악단에서 노래 ≪우리는 맹세한다≫를 새로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그 노래는 내가 그냥 가지고있다가 수령님의 서거 100일을 맞으며 내놓았습니다. 노래 ≪우리는 맹세한다≫는 가사를 명백하게 통속적으로 잘 썼습니다. 이 노래에는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당의 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며 사회주의 우리 나라를 더 훌륭히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가 잘 반영되여있습니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우리는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조국을 더 부강하게 건설하여야 합니다.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여야 우리의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일수 있고 조국통일위업도 앞당길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자면 당을 튼튼히 꾸리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고 인민의 생명입니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여기에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조직사업을 잘하여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대렬안에 그 어떤 이색분자도 끼여들지 못하게 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조직사업과 함께 당사상사업을 실속있게 잘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기본은 주체사상교양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민족의 생명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나가자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전당, 전민, 전군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계를 떠나서는 당의 강화발전에 대해서도,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무적필승의 무기입니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하면 그 어떤 강적도 무서울것이 없으며 그 어떤 난관도 뚫고 승리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의 난국을 뚫고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 새로운 혁명적경제전략을 내놓은지 1년이 되여오지만 경제사업이 당의 요구대로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있습니다.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는데서 중심을 놓치고 여기저기 력량을 분산시키며 건설을 많이 벌려놓고있는것이 주요한 편향입니다.

수령님께서는 경제문제때문에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심려하시다가 돌아가시였는데 어떻게 하나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여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튼튼히 틀어쥐고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의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생활을 빨리 높여야 합니다. 정무원 위원회, 부들과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은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모든 사업을 지향시키며 특히 농업과 경공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정무원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따져보고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바로세워야 합니다.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의 기본목표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농업과 경공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방향에서 세워야 합니다. 농업과 경공업에 힘을 집중하지 않고서는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없으며 우리가 살아나갈수 없습니다. 농업과 경공업을 추켜세우자면 전력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에도 힘을 넣어야 합니다. 전기가 없이는 비료도 생산할수 없고 농사도 제대로 지을수 없으며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릴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려놓고있는 건설대상들을 다 따져보고 자를것은 잘라 설비와 자재, 자금을 농업과 경공업 부문에 돌려야 합니다.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정무원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무원은 나라의 전반적경제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조직지휘하는 경제사령부이며 나라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지고있습니다. 경제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정무원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당에서는 정무원이 경제사령부로서 나라의 경제사업을 전적으로 맡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무원책임제, 정무원중심제를 내놓고 모든 사업조건을 지어주었습니다. 정무원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정무원책임제, 정무원중심제를 철저히 실현하여 나라의 경제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하여야 합니다. 위원회, 부를 비롯한 경제기관들은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정무원에 집중시키고 정무원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풀어나가야 합니다.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면 일군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지금 경제사업에 일련의 난관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일군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아글타글 애써 일한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생전에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입니다. 나는 일군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며 자기 단위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애도기간에 연백벌안의 협동농장들과 전천군상업관리소, 맹산군을 참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천군상업관리소와 맹산군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일을 잘한 모범단위입니다. 지방에서는 맹산군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널리 벌리고 상업부문에서는 전천군상업관리소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정춘실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오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 혁명을 하고있으며 아직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여러가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으며 미제와 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려면 결정적으로 당과 함께 인민군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을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도 다그쳐나갈수 없고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습니다.

현시기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서도 중요한 문제는 인민군대가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군대입니다.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로서 조선로동당의 기발,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당의 군대로서 당의 위업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운다는데 바로 우리 인민군대의 본질적특성과 불패성이 있습니다. 인민군대안에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위업에 충실하며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당과 군대가 혼연일체가 되여야 합니다. 당과 군대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군대를 틀어쥐지 못한 당은 위력을 발휘할수 없으며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군대는 힘있는 전투부대로 될수 없습니다. 당이 없이 군대만으로는 혁명전쟁에서 승리할수 없습니다. 군사명령지휘체계로 군대는 움직일수 있어도 수백만 대중은 움직일수 없습니다.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는것은 당입니다. 오직 당과 군대가 혼연일체를 이룰 때에만 전당, 전민, 전군을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습니다. 혁명적당은 군대가 총대로 보위해주어야 그 불패성이 담보되며 혁명군대는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고 당이 군중을 조직동원해주어야 무적의 힘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당과 군대가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원쑤와도 싸워이길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이자 군대이고 군대이자 당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인민군대에서 당풍에 기초한 혁명적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당을 견결히 옹위하고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위업을 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군민관계를 잘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민관계를 잘 가지는것은 싸움준비의 한고리입니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지 않고서는 적과 싸워이길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며 유사시에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침략자들을 쳐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워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적극 원호하게 하며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그 어떤 적도 덤벼들수 없게 우리 나라를 고슴도치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국방체육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적들과 직접 맞서있는 나라이므로 사격, 권투 같은 체육종목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완성하며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관철하는데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렬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력과 온갖 정력을 다 기울이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그처럼 간절히 바라시였지만 통일의 그날을 보시지 못하고 서거하셨습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수령님의 유훈이며 온 민족이 통일된 조국에서 화목하게 잘살도록 하시려는것이 수령님의 뜻이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꽃피워야 합니다.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데려오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다보니 남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은 공화국의 품에 안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습니다. 남조선에 비전향장기수가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자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기본징표이며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혁명승리의 기본담보입니다. 우리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이 계속되는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를 고수해나갈수 있는것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자주성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은 정치적자주성이 없이 큰 나라들이 하라는대로 하다가 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과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오시는 전과정에 일관하게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시였습니다. 지난날 대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와르샤와조약기구에도 들고 쎄브에도 들라고 압력을 가하였지만 수령님께서는 거기에 들지 않고 철저히 독자성을 견지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와르샤와조약기구와 쎄브에 들지 않은것은 천만번 옳았습니다. 만일 우리 나라가 와르샤와조약기구와 쎄브에 들었더라면 어떤 큰 피해를 입었을지 알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수령님은 선견지명을 지니신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령도자이시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도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자!≫라는 구호를 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호보다 더 좋은 구호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철두철미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공보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가 6월 30일 서울에서 조직되었다.

회의에는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중앙위원들 도, 시위원회들과 각급 조직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7주년에 대한 행사조직에 대하여≫의 의제가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7월 8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7주년이 되는 잊을수 없는 날이라고 언급하고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에게 있어서 지난 7년간은 얼마나 위대하신 만고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영수로 모셔왔는가를 다시금 피부로 절감하며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워 온 경모의 나날이었다고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20세기가 낳은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시고 20세기의 준엄한 폭풍을 헤치시며 백승의 위훈을 창조하신 영도의 거장이시며 만민을 매혹시키는 특출한 인품과 덕망을 지니신 20세기 혁명의 대성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가슴 뜨겁게 회고하였다.

회의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주체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함께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역사는 세기에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이 땅의 각계 민중속에서 7월 8일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따라 수령님의 필생의 염원이었던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열기가 더 한층 높아가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7주년을 맞으며 7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회고행사기간으로 할 것이다.
2.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7주년을 맞으며 한민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할 것이다.
3. 회고행사기간에 한민전 각급조직들과 애국운동단체들에서 자체실정에 걸맞게 회고모임, 강연회, 연구토론회, 비디오시청,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벌일 것이다.
4. 회고행사기간에 ≪구국의 소리 방송≫과 ≪구국전선 인터넷≫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은 특집을 조직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열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갈 것이다.

주체 90 (2001)년 6월 30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 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80여성상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서거하신지 3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혁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조국땅우에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3돐을 맞으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일 충성의 한마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천재적인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숭고한 덕망으로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가, 걸출한 정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20세기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와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에서 이룩된 모든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직접 결부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깊이 통찰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이민위천의 새로운 철학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사상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시고 그 보물고에 빛나는 공헌을 하시였으며 력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다.

주체사상의 홰불로 조선혁명의 가장 정확한 진로를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류례없이 준엄하였던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우리 혁명이 억년드놀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만년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위력한 주체형의 혁명적당과 혁명정권, 불패의 혁명무력을 세우시고 새 조국 건설의 굳건한 토대를 닦으시였으며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몸소 진두에서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끄시여 혁명과 건설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운동력사에 영원히 빛날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지난날 뒤떨어지고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독립되고 륭성번영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무력하고 천대받던 우리 민족을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주적이며 존엄높은 민족으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혁명의 먼 앞날까지 명철하게 내다보시고 우리 당과 인민이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명맥을 순결하게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는 가장 고귀한 혁명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신 전기간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7천만 겨레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에게 잃었던 내 나라를 찾아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신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여 우리 나라와 인민을 민족적 륭성과 번영에로 이끌어주신 주체조선의 위대한 창건자, 령도자이시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정치의 공인된 원로로서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을 자주위업에로 인도하시여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영원한 상징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은 수령님께서 우리 당과 인민에게 물려주신 가장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인민이 앞으로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재부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지난 3년간은 우리의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 남녀로소 전체 인민이 상제가 되여 사무치는 그리움과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수령님을 추모해온 전인민적애도의 나날이였으며 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고 우리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온 승리의 나날이였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받들어 모시는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훌륭히 보여주었으며 당의 령도따라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해나가려는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수령님은 무궁토록 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전체 인민과 온 민족의 절대적인 흠모와 신뢰를 받으시며 우리 모두의 심장속에 영생하실것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들어섰다.

새 시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결정적승리가 이룩될 위대한 시대, 조국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이 일떠서고 통일조선민족의 위용과 기상을 높이 떨치게 될 력사적시대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3돐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억만년 흐를 주체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내여나갈것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주체년호를 제정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세련된 령도따라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투쟁에서 새로운 더 큰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1997년 7월 8일



조국통일 3대헌장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리후락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부장을 대신한 박성철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리후락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념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리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래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작은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련계를 회복하며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영주부장과 리후락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김영주 리후락
1972년 7월 4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 1980년 10월 10일

. . .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해방 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 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어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 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연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상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 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염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 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 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 민족의 근본 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이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뿔럭에도 가담



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연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전 영토와 전 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 인민의 근본 이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 수 있으며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쁠럭불가담국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이념이며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연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 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이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 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 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 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이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며 호상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무역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해방 후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은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연방 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연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 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양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연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 수 있으며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을 연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뱃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 사이의 자유로운 내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 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통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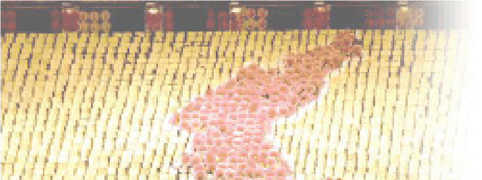
연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민족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연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 각층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노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노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 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 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영세 농어민들과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호상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연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연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 안에서 전 민족적 이익과 두 지역의 이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으며 연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입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연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이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방 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연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 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중립노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인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어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 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우리 나라 영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은 전체 조선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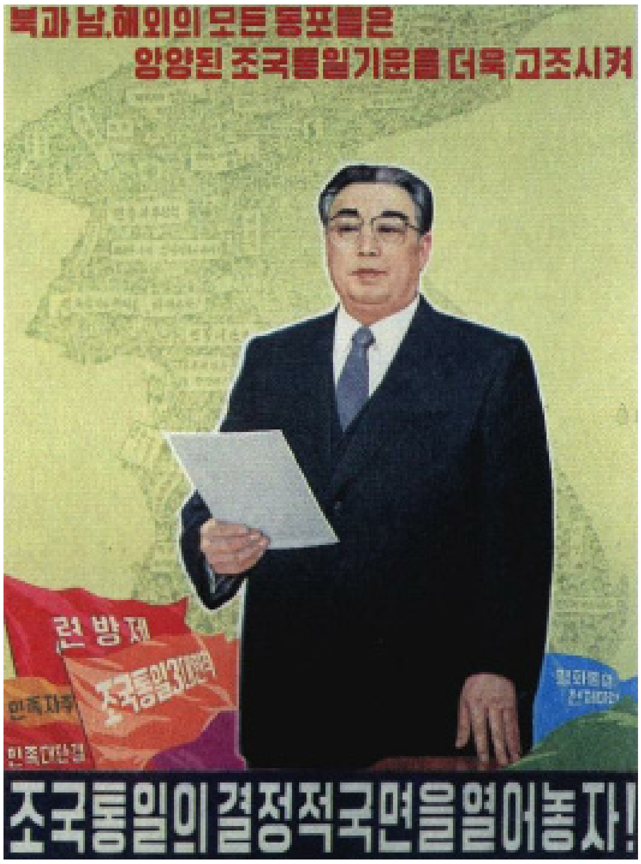
우리 당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하는 조국통일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정강은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을 것이며 세계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방안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5천만 겨레의 절절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방안대로 연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장애와 난관을 반드시 뚫고 나갈 것이며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코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온 민족이 단결하고 북과 남이 합작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 나라는 5천만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서 당당한 존엄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무대에 등장할 것이며 삼천리 강토 위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낙원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1993년 4월 6일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 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연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나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 이익에 앞서 전민족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

4. 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 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 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이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은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 있은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8. 접촉, 내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내왕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 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하여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열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통일헌장지지 국제적 서명운동 참가

(100여개 나라에서 1억 5,655만여명)

(평양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이 세계적판도에서 광범히 진행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국의 발기와 호소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운동에 지금까지 100여개 나라에서 500여개의 정당, 단체, 친선 및 련대성조직, 지역 및 국제기구들 그리고 정계, 경제계, 학계, 출판보도계와 군부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서명자대렬은 달과 달을 이어 끊임없이 늘어나 아시아의 15개나라에서 8, 000여만명, 아프리카의 35개 나라에서 5, 500여만명, 아메리카의 30여개 나라에서 800여만명, 유럽의 20개 나라에서 900여만명, 오세안주에서 20여만명, 국제기구들에서 수백만명이 이 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7개월 남짓한 기간에 서명운동참가자수는 총 1억 5, 655만여명에 이르게 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히신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에 관한 명제

인터넷 구국전선 주체 89년 11월 11일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담보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단결은 모든 승리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서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다 단결하여 한 대오에서 나아가야 합니다.설사 한때는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선다면 과거를 백지화하고 그와 단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과 단결하려고 합니다.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남조선의 자본가들과도 단결하려고 합니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이 화해하고 통일하자면 어차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 배척하고 이단시하는 것은 민족을 사분오열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조선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그리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할 것 없이 모두다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할 숭고한 민족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은 누구나 다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은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며 통일된 조국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통일전선에 관한 명제

인터넷 구국전선 2월 16일자

≪노동계급의 당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사회단체들과 통일전선을 실현하는 것은 당의 사회적 지반을 확대강화하며 반혁명세력을 고립약화시키고 강력한 혁명역량을 꾸리는 데서 전략적 의의를 가집니다.≫

≪현시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기본사명은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을 하나의 통일전선대오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입니다. 조선민족으로서 조국통일을 바라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며 외세와 한짝이 되어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분열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서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다 단결하여 한 대오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상과 이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합니다.≫

≪전국적인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차이점은 뒤로 밀고 공통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약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활동 략력≫을 출판

(평양 주체 89년 4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8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활동 략력≫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에서 이번에 새로 보충편찬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략력은 12개의 시기로 나누어 서술되여있다.



주체1(1912)년 4월부터 주체20(1931)년 12월까지의 혁명활동시기에는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혁명의 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ㅌ. ㄷ≫의 기치밑에 혁명의 길을 독자적으로 개척해나가시는 과정에 혁명의 지도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히시였으며 첫 당조직을 결성하신데 이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 무장조직인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고 항일무장투쟁준비를 위한 정치군사적준비를 튼튼히 갖추심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이조직적인 무장투쟁단계에로 발전할수 있게 하신데 대하여 서술되여있다.

주체20(1931)년 12월부터 주체25(1936)년 2월까지의 혁명활동시기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력사적인 명월구회의에서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여 항일대전을 선포하시고 혁명적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데 대해서와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1930년대 전반기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보존, 축적, 장성시키신데 대하여 서술되여 있다.

주체25(1936)년 2월부터 주체29(1940)년 8월까지의 혁명활동시기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1930년대 후반기 항일무장투쟁이 국경일대와 국내에로 확대강화되고 당창건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힘차게 벌어 진데 대하여 서술되여 있다.

주체29(1940)년 8월부터 주체34(1945)년 8월까지의 혁명활동시기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1940년대 전반기 급변하는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을 제시하시고 소부대군사정치활동을 적극 벌리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과 전민항쟁으로 강도일제를 격멸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서술되여 있다.

주체34(1945)년 8월부터 주체36(1947)년 2월까지의 혁명활동시기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후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시여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지체없이 당창건의 력사적인 위업을 이룩하신데 이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여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굳게 묶어세워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북반부를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서술되여 있다.

주체36(1947)년 2월부터 주체39(1950)년 6월까지의 혁명활동시기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임무에 맞게 사회주의정권문제를 우리 식으로 빛나게 해결하시고 과도기 첫 시기 당의 경제정책과 경제건설방향에 기초하여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며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초를 튼튼히 쌓기 위한 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서술되여있다.

주체39(1950)년 6월부터 주체42(1953)년 7월까지의 혁명활동시기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을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 있게 조직동원하시여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침략자들을 때려 부시고 조국해방전쟁의 빛 나는 승리를 이룩하신데 대하여 서술되여 있다.

주체42(1953)년 7월부터 주체49(1960)년 12월까지의 혁명활동시기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만 남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전후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과 함께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시여 짧은 기간에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국가사회제도를 새로운 사회주의적기초우에서 보다 강화하신데 대하여 서술되여 있다.

주체50(1961)년 1월부터 주체59(1970)년 11월까지의 혁명활동시기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전면적건설을 위한 웅대한 7개년계획의 기본방향과 임무를 밝히시고 경제건설과국방건설의 병진로선관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 나게 수행하심으로써 우리 나라를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신데 대해서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와 전당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지적되여 있다.

주체59(1970)년 11월부터 주체69(1980)년 10월까지의 혁명활동시기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 있게 벌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신데 대해서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특출한 업적에 대하여 지적되여 있다.

주체69(1980)년 10월부터 주체78(1989)년 12월까지의 혁명활동시기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시고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 있게 다그치시였으며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시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 오기 위한 새로운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데 대하여 서술되여 있다.

주체79(1990)년 1월부터 주체83(1994)년 7월까지의 혁명활동시기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이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의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닺쳐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추호의 동요도없이 사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도록 하시였으며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받들고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의 강력한 보루로 튼튼히 다지도록 하신데 대해서와 80이 지난 고령으로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면서 앞날의 모든것을 예견하신듯 생의 마무리를 하나하나 깨끗이 하시였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다가 집무실에서 순직하신데 대하여 지적되여 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리찬 작사, 김원균 작곡)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해방된 조국땅에 높이 모신 끝없는 기쁨과 행복, 감격과 환희로 들끓던 주체35(1946)년에 창작되였다.

망국노의 설음이 가득찬 조국땅위에 민족재생의 새봄을 안아오시고 나라와 인민의 광휘로운 미래를 펼쳐주신 김일성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천만년 길이 모시려는 온 겨레의 심장의 웨침이 그대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여 울려퍼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조선혁명의 자랑찬 반세기의 년대기들마다에서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높이 울려퍼진 이 불멸의 혁명송가는 오늘도 래일도 7천만 겨레와 세계 수억만 사람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영생축원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이 세상 끝까지 천만년 길이길이 울려퍼질 것이다.

1.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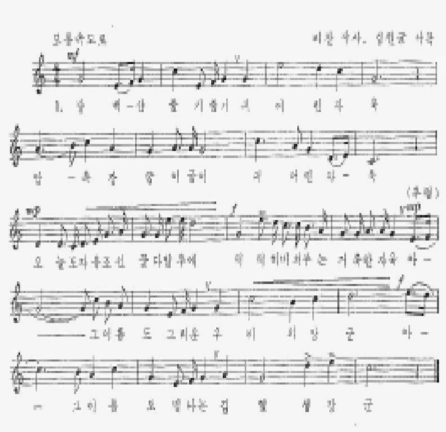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2.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3. 로동자 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 조선엔 위대한 태양
이십개 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한평생 인민위해 바친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
꿈결에도 안고 사는 마음 오늘도 그 품을 찾네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한평생 조국위해 바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나 이 조선 무궁하여라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김일성화





주권을 되찾기 위한 강령인 것입니다.
≪**김**≫: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민족대단결의 기초와 원칙, 방도와 슬로건들을 제시하시고 위대한 광폭정치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신 통일의 구성이시고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유**≫: 주석님께서 지니신 참다운 민족대단결사상에 감복하여 이 땅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통일의 길에 나섰는데요. 그들중에는 지어 지난날 한국군에 복무했던 군장성들을 비롯해 반공을 하던 사람들도 있지요. 지금 이 땅의 진보단체들은 물론 정계와 재계, 사회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 민중들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 뭉치고 있습니다.
≪**김**≫: 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이 있어 오늘 통일의 주체적 역량이 튼튼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대단결의 활로를 여시어

인터넷 ≪구국전선≫ 주체 89년 4월 11일

≪**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온 겨레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88회 탄생일인 태양절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 네. 위대한 주석님께서 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에서도 큰 업적의 하나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족성원들이 갖고 있는 각양각색의 이해와 요구를 전일적으로 포용하는 이념을 정립하고 민족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있을 때 비로소 민족의 대단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민족사에서는 마침내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이 펼쳐지고 온 겨레는 대단결의 중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유**≫: 옳은 말씀입니다.
주석님의 한평생은 민족문제해결에 전력을 다해오신 한평생이었고 민족대단결에 헌신해 오신 불멸의 한평생입니다.
≪**최**≫: 주석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대전에 나서신 첫날부터 민족을 살리는 길은 오직 민족대단결에 있다는 것을 통찰하시고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양심적인 종교인들과 자본가들까지 광범위한 애국역량을 망라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전민항쟁을 영도하시어 마침내는 나라를 광복시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김일성**주석님에 의한 조국광복회창립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거대한 사변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김**≫: 광복후에도 그랬죠.
주석님께서 평양에서 하신 유명한 개선연설말입니다. 그때 주석님께서는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광복된 새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전체 민중에게 호소하셨지요.
≪**최**≫: 네. 참으로 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이 집대성돼 있는 유명한 연설이었죠.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민족대단결의 이 슬로건은 바로 8.15광복전에 그분께서 작성제시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지요.
≪**유**≫: 네. 그러고보면 1948년 4월에 열렸던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도 주석님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죠. 그때 백범 김구선생을 비롯해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이 서로 다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석님의 넓은 도량과 그분의 민족대단결사상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했습니까.
≪**김**≫: 옳은 말씀입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90년대 초 온 겨레의 통일염원을 반영하여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놓고도 그분께서 민족대단결을 위해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 오셨는가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주석님께서 평생을 조국광복과 새조국건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영도해오시는 과정에 빛나게 구현해 오신 민족대단결의 경륜이 집대성된 통일대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 저는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그 생명력의 견지에서 볼 때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맞먹는 의의를 가진다고 봅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 민족해방실현을 위한 강령이라면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국통일이라는 또 하나의 완전한 민족해방실현을 위한 강령으로서 다같이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의 자

≪**최**≫: 네. 옳은 말씀입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민족대단결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도자님께서는 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 3대기둥으로 정립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헌신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98년 4월에 발표하신 명저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놓고서도 영도자님께서 민족대단결 문제에 관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유**≫: 위대한 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위대한 영도자님에 의해 승계되어 빛나는 결실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최근 시기만 봐도 거족적인 통일운동단체인 범민련이 결성되고 범민족대회가 정례화되지 않았습니까. 통일애국의 주체적 역량이 전민족적 범위로 확대강화되어 분열주의세력을 압도하고 자주통일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통일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이 더욱 커집니다.
≪김≫: 네. 위대한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이념, 주석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민족애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시어 반드시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의 소원성취로 이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국전선
Http://www.ndfsk.dyn.to

넓은 도량 위대한 포옹력

구국의 소리 주체 90년 6월 25 - 26일



이 세상 만물을 거느리고 무한한 활력을 부어주는 태양처럼 불멸의 존함 그대로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김일성**주석님.

주석님께서는 한평생 애국의 이념과 크나큰 친화력을 지니시고 겨레를 민족자주위업의 길, 애국애족의 길에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사랑은 주석님의 천품이셨죠. 그 뜨거운 민족애가 넘치는 넓은 도량과 포옹력은 그분의 천부적 성품이셨구요.

때문에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민족자주위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한없이 넓은 도량과 숭고한 포옹력으로 온 민족을 한품에 안아 애국의 한길로 이끄셨습니다. 주석님의 태양의 품, 대해같은 품이 있어서 반공에서 연공에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진정한 애국의 길, 민족대단합의 길을 걸은 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중에는 백범김구도 있죠. 6월 26일, 백범김구가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해 피살된 날인데요. 올해가 52해째죠. 오일씨 모시고 백범김구씨를 반공으로부터 연공, 통일에로 이끌어주신 **김일성**주석님의 넓은 도량과 위대한 포옹력에 관해서 돌이켜 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오 일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네, 6월 26일은 백범김구씨가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해 피살된지 52해가 되는 날인데요. 이날에 즈음해 우리 민중은 김구씨를 반공으로부터 연공, 통일의 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김일성**주석님의 넓은 도량과 위대한 포옹력에 대해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그분의 영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서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오 일 : **김일성**주석님은 도량과 포옹력으로 믿음과 사랑의 정치, 광폭정치를 베푸시어 각이한 인생행로를 걸어온 사람들을 다 한품에 안아 애국애족의 길, 통일의 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신 절세의 위인이십니다. 바로 이런 위인이시기에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르듯이 만민이 주석님을 우러러 따랐던 겁니다.
사회자 : 네, 김구씨로 말하면 완고한 민족주의 두령이고 반공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오 일 : 그렇죠. 그런 그가 주석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이념과 넓은 도량에 감복해 그분의 뜻을 받든 사실만으로도 주석님의 위인적 풍모를 잘 알수 있죠. 아시다시피 김구씨가 주체 37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하는 용단을 내리기까지는 난관도 많았고 생각도 많았죠. **김일성**장군님은 공산주의자이신데 자기와 같이 허물많은 인간을 과연 용서해 주실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석님께서 특사를 거듭 파견하시어 정중히 초청장을 전달하시는 등 넓은 도량과 아량을 베푸신데 대해 감복해서 마침내 평양행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회자 : 김구씨는 **김일성**주석님을 직접 뵙고서야 그분은 과시 위인이시구나 하는 걸 느꼈죠.
오 일 : 그가 주석님의 위대성에 얼마나 매혹되었는가 하는 건 자기의 운명처럼 소중히 간수했던 상해임시정부인장을 주석님께 바치겠다고 한것만 봐도 잘 알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석님께서는 김구에게 그 마음이면 족하다고 하시면서 그가 올리는 인장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사회자 : 네, **김일성**주석님은 정말 너그러운 도량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이시죠.
오 일 : 주석님께 완전히 매혹되어서 ****김구씨는 **앞에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죠.

≪조선을 바로잡을 영웅은 **김일성**장군님밖에 없다. 평양에 가서 장군님을 만나뵈니 그분은 대군사전략가이실 뿐아니라 젊은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영웅은 역사에서 드물게 나오는데 이런 영웅을 낳자면 수천년의 역사에도 힘들다. 그러한 영웅이 조선에서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는 **김일성**장군님을 뵈오니 그분의 곁에서 떨어지기 싫더라면서 그분께서 나라의 장래를 말씀하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민족의 장래가 환히 내다보이더라고 말했다고 해요.
사회자 : 그후 김구씨는 운명의 마지막시기 주석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통일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오 일 : 네, ≪깨달음은 아무리 늦어도 빠른 법이다≫라는 격언이 백범을 두고 한 말인가봐요. 그는 인생말년에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찾았기에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는 그런 인간이 되었어요.
사회자 : 네, **김일성**주석님 덕분이죠.
오 일 : 그럼요. 김구씨가 피살되었다는 비보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신 분은 주석님이셨다고 해요. 그분께서 기회가 있으실때마다 김구씨를 추억해 주셨다는 것만 봐도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잊지 않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사회자 :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남의 추억속에, 특히 위인의 추억속에 있을 때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다고 봐요.
오 일 : 그렇죠. 그러고 보면 김구씨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예요.
사회자 :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찌 김구 한사람뿐이겠어요.
오 일 : 그럼요. 김규식, 여운형, *** 가깝게는 최덕신, 문익환 등 수많은 유명, 무명인사들이 **김일성**주석님에 이어 **김정일**장군님의 품에서 영생하고 있죠. 실례로 **전 6월 중국 용정에서는 문익환목사 생일에 기념해 이북과 이남의 전국연합이 공동주최로 문익환목사 가족친척들, 많은 저명인사들이 참석한 속에서 문목사 회고모임이 성대히 열렸었죠.
사회자 : 네, 세월과 더불어 모든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전사들에 대한 위인의 사랑인가봐요. **김일성**주석님은 참으로 믿음과 사랑, 광폭정치로 겨레 모두를 한품에 안아 이끌어주고 사랑해주신 민족의 영원한 태양, 자애로운 어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선대수령의 위업과 풍모는 후대수령에 의해 이어지고, 오늘은 **김정일**장군님의 품을 찾아 이 땅의 정객들, 인사들이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그래요. 천도교 교령이었던 오익제씨가 평양에 영주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중임을 맡고 인생의 참삶을 만끽하고 있죠.
사회자 : 그렇죠. **김일성**주석님 그대로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셔서 유명무명의 수많은 인사들이 죽어서도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7천만 겨레는 통일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받들고 그분의 주위에 굳게 뭉쳐 조국통일성업을 반드시 이룩함으로써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실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4월남북연석회의 오늘에 다시 본다.

인터넷 구국전선 주체 90년 4월 21일자 / 조연택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사변인 4월남북연석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어느덧 53년의 세월이 흘렀다.

4월남북연석회의는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고 민족영구분열의 위기를 가시기 위해 사상과 정견, 신앙이 각이한 모든 애국적 정당, 단체들이 과거를 불문하고 얼마든지 단결할 수 있고 힘을 합쳐 통일방략도 함께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자못 크다 하겠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37(1948)년 3월 25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제26차 회의에서 미국과 그 주구 이승만일파의 민족분열책동으로 우리 민족 앞에 드리운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민족자주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남북 정당, 단체대표자들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발기하시었다.

주석님의 발기에 의해 소집된 이 회의에는 이북에서 북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당을 비롯한 3개 정당 12개단체와 이남에서 근로인민당, 신진당 등 41개 정당, 단체 등 남과 북의 56개 정당, 단체성원 1천여만을 대표하는 6백 95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1948년 4월 19일 평양모란봉극장에서 막을 올린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치하게 미국과 이승만일파의 망국적인 5.10 단선을 규탄하고 그것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민족분열을 우려하는 각당, 각파, 각계층 민중들을 하나의 거족적인 민족통일전선에 결집시킬 것을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충만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보고를 열렬히 지지찬동했으며 사상과 정견,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통일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진지하게 토의했다.

대표들은 한결같이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경모의 정을 표시하고 주석님의 현명한 영도에서 국난타개의 밝은 전도를 찾았다.

당시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한국독립당위원장 김구씨는≪조선은 참으로 훌륭한 주인을 만났소. **김일성**장군님께서 영도하셔야 조선은 행복하게 될 수 있소.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가겠소.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요≫라고 감격에 겨워 말했다.

또한 민족자주연맹주석 김규식씨는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군사지략과 정치를 겸비하신 걸출한 영웅이시오. 그분의 정치보고를 읽어도 그렇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그분은 참으로 식견이 넓으시고 분석력과 통찰력이 비범하신 분이시오≫ 라고 하며 주석님을 민족의 구세주로 높이 칭송했다.

회의후 이남에 돌아온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연석회의 참가자들과 민족주의인사들은 공개기자회견, 공개성명 등을 통해 주석님의 출중함과 이북의 민주건설성과를 적극 홍보했으며 연석회의에서 토의하고 결의한대로 ≪단선단정≫을 반대하고 통일적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해 과감한 반미구국통일운동을 전개했다.

그들은 그해 7월 21일 서울에서 한국독립당, 민족자주연맹을 비롯한 80여개의 정당, 단체대표들을 망라해 민족통일전선을 지향하는≪통일촉진협의회≫를 무었으며 미군철수와≪북진통일≫반대의 구호밑에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다.

참으로 역사적인 4월남북연석회의는 민족이 있고서야 정당도, 주의주장도 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남과 북의 모든 애국적 정당, 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사상과 정견,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털어 놓고 나라의 통일방책을 토론한 민족단합의 대회합이었다.

남북연석회의를 계기로 그때까지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와의 대연합이 실현되게 되었다.

이것은 사상과 이념, 신앙과 재산의 차이에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며 과거 민족 앞에 불미스러운 죄를 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애국의 길에 들어선다면 불문에 붙이고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을 명시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폭넓은 민족단합방침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4월남북연석회의가 있은지 53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 앞에는 미국과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물리치고 기어이 조국통일을 성취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 나서고 있다.

시대와 역사 앞에 나선 이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하자면 온 겨레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헌장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통일애국의 길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특히 오늘 우리 앞에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마련된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성스러운 과제가 나서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각당, 각파, 각계 애국민중은 분열은 매국이고 통일은 애국이라는 대의밑에 애국애족의 일념안고 주의주장과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단합해야 하며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강력한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각계층 애국민중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일구월심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그분께서 가리키시는 통일애국의 길로 힘차게 매진해야 할 것이다.



통일전선탑과 함께 빛나는 이름들

인터넷 구국전선 주체 90년 4월 21일자 / 채수항

자주민족의 시조이시고 어버이이신 **김일성** 주석님에 의해 민족대단결사상이 창시되고 민족적 단합의 참다운 역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세기적 변혁의 언덕을 넘으면서 여러 번 세대가 바뀌었지만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성스런 위업에 몸바친 사람들의 이름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 있다. 인생의 출발점과 걸어온 길은 서로 달라도 민족자주위업에 바쳐진 넋을 값높이 여기고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는 위대한 품이 있기 때문이다.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반공의 편견에서 벗어나 연공애국, 통일애국에의 인생전환으로 민족사에 애국의 흔적을 남긴 지사들의 이름이 세대와 세대, 세기와 세기로 이어지며 빛나는 것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한없이 넓은 포용력, 고결한 의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주석님과 장군님께서 민족대단결을 기리는 통일전선탑에 반공으로부터 연공애국의 길로 인생전환을 한 통일애국열사들의 이름도 새겨넣으시어 민족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나도록 해주신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통일전선탑은 평양의 만경대 맞은편 대동강 한가운데에 떠있는 두루섬과 나란히 있는 쑥섬에 건립되었다.

쑥섬은 주체37(1948)년 5월2일 경애하는 주석님의 지도밑에 4월남북연석회에 참석했던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회를 가졌던 유서깊은 사적지이다.

쑥섬에 통일전선탑을 건립할 구상과 발기를 하신 것은 **김일성**주석님이시었다. 영명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통일전선탑을 시대의 기념비로 훌륭하게 건립하시었다.

통일전선탑에 대한 몇가지 자료

· 1990년 8월10일 조국광복 45돌을 맞으며 제막함

· 4월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던 남북의 정당, 단체들의 수를 상징하여 56개의 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쌓은 높이 13.5m의 석탑임

· 탑은 기단과 비문판, 탑신으로 이루어져 있음

· 탑신 앞면에는 주석님께서 친히 쓰신 ≪통일전선탑≫이라는 다섯글자가 금빛으로 부각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4월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던 정당, 단체들의 명칭이 새겨져 있음

· 비문판의 앞면에는 4월남북연석회의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신 경애하는 주석님의 교시와 존함이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쑥섬협의회에 참석했던 대표들의 이름과 직무가 새겨져 있음

여러 경로를 거쳐 방북의 길에 올랐던 사람들 중에는 통일전선탑을 참관한 사람들이 많다. 해외교포들도 평양에 가면 으레 쑥섬사적지를 찾고 통일전선탑 앞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춘다고 한다.

그때마다 특별히 그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김구, 김규식, 홍명희, 백남운, 이극로, 조소앙, 조완구, 엄항섭, 최동오, 정진석을 비롯한 이남출신의 통일애국인사들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통일전선탑은 민족의 대단결로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하시려는 주석님과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의해 솟아난 역사의 기념비이고 주석님과 장군님께서 통일성업에 공헌한 애국적 인사들에 대한 의리가 얼마나 깊으신가를 감명깊게 보여주는 증언자라 하겠다.

조국광복회, 그 창립경위와 공적

인터넷 구국전선 주체 90년 5월 1일자 / 정명학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30년대 전반기 통일전선운동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1936년 2월 남호두회의에서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를 결성할 방침을 제시하셨다.

남호두는 만주대륙에서 으뜸가는 명승지로 이름난 경박호의 남쪽호반에 위치하고 있는 고장이다. 남호두란 바로 호수의 남쪽 머리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이 호수로 흘러드는 소자지하라는 강을 따라 상류로 몇십리 올라가면 깊은 계곡의 어느한 산탁에 귀틀집 두채가 있는데 그중 한채가 남호두회의가 열렸던 역사의 집이라고 한다.

남호두회의는 1936년 2월하순부터 근 한주일동안에 걸쳐 진행되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이 회의에서 1930년대 전반기 두만강연안에서 조직전개한 군사정치활동의 성과와 경험을 결산하시고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과 그 수행방도들을 제시하셨다. 그것은

* 조선인민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와 백두산지구에로 진출시키고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하며
*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를 창립하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 판도로 확대하며
* 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며
* 공청을 반일청년동맹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주석님의 항일혁명투쟁사에서 남호두회의를 193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획짓는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회의에서 상설적인 통일전선체의 창립에 관한 방침을 비롯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이 제시되고 이 때로부터 항일무장투쟁을 주축으로 하는 전반적 반일민족해방투쟁이 일대 앙양기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조직하고 힘있게 밀고 나가시었다.

* 우선 조국광복회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시었다. 준비위원회에는 혁명군의 우수한 지휘간부들과 국내외의 명망있는 애국적 인사들이 망라되었다.
* 국내와 만주의 넓은 지역에 파견원들을 보내시어 각지에서 활동하는 혁명군부대들과 혁명조직들, 애국적 단체들에 남호두회의방침을 전달하고 조국광복회창립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시었다.
* 몸소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 규약을 작성하시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1936년 3월초 녕안현 남호두를 떠나 4월말 무송현 동강에 이르는 기간에 때로는 숙영지의 눈보라 울부짖는 천막안에서, 때로는 간고한 행군과 가열한 전투후에 잠시 휴식하는 여가에 진대나무에 걸터앉으시어 바위를 책상삼아 조국광복회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의 초안을 작성하시고 한자한자 다듬어 완성하시었다.

* 주민지에 머무를 때마다 각계각층의 민중들과 반일애국단체들에 조국광복회의 창립취지와 투쟁목적을 친히 해설해 주시어 그들이 조국광복회 창립사업에 동참해 나서도록 하셨다.

조국광복회창립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36년 5월1일 동강에서 창립대회를 소집하시었다. 회의는 15일동안 진행되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역사적인 보고에서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속하기 위한 과업과 국경지대와 국내에 진

출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며 항일무장투쟁을 가일층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국경연안에 새로운 근거지를 창설할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주석님께서는 또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대회심의에 붙이시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이에 전폭적인 지지, 찬동을 표시하고 강령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적극 실현할 결의들을 굳게 다졌다. 특히 온 민족이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천만 민중이 한데 뭉쳐 반일조국광복전에 참가할 것을 열렬히 호소한 창립선언은 대회참가자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이 채택된 다음 이 선언을 누구의 이름으로 발표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혁명군 지휘간부들과 국내외 각지에서 온 대표들은 일치하게 조국광복회창립을 직접 발기하시고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준비사업을 주관해 오셨으며 강령과 창립선언도 친히 작성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이름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일찍부터 독립운동에 투신한 전적이 있는 명망높고 나이지숙한 애국지사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사양하셨다. 그런데 회의참가자들도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하여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김동명이라는 가명을 쓰는 조건에서 발기인의 한사람으로 나서는데 동의하셨다.

결국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은 김동명이라는 가명으로 발표되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65년전인 1936년 5월5일이었다.

조국광복회창립이 선포되던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회의참석자들의 일치한 총의에 따라 이 조직의 회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었다.

조국광복회창립대회에서는 조국광복회 기관지로서 ≪3월 1일자 월간≫을 간행하기로 결정했다. ≪3월 1일자 월간≫창간호는 1936년 12월1일에 발행되었다.

조국광복회는 창립후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큰 공적을 남겼다. 그것을 몇가지 측면에서 소개하면

– 우선 국내와 만주의 넓은 지역에서 광범위한 반일애국역량을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웠다.

* 조국광복회조직들은 당시 함경남도의 갑산, 혜산, 보천보, 호인, 삼수, 운흥, 신갈파(현재 김정숙군), 풍산, 허천, 함흥, 흥남, 함주, 단천, 북청, 이원, 신흥, 오로(현재 영광군), 영흥(현재 금야군), 홍원, 원산, 천내, 함경북도의 무산, 삼장, 연사, 청진, 나남, 나진, 경성, 주을(현재는 경성군), 성진(현재 김책시), 길주, 명천, 부령, 온성, 회령, 종성, 웅기(현재 선봉군), 유선, 강원도의 철원, 평안북도의 후창(현재 양강도 김형직군), 동흥, 신의주, 평안남도의 평양, 남포, 경기도의 서울, 인천, 경상남도의 부산 등지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도시와 농어촌들에 깊이 뿌리내리고 활동했다.
* 만주에서는 동만에서 화룡, 연길, 안도, 왕청, 훈춘, 남만에서는 반석, 화전, 즙안, 통화, 환인, 몽강, 관전, 휘남, 북만에서 녕안, 돈화, 액목, 철려, 교하, 경성, 통하, 방정, 목단강, 동녕, 요하, 임구를 비롯한 여러 곳에 결성되어 맹활약을 진행했다.

* 조국광복회조직망이 제일 조밀하게 분포된 지역은 장백현일대였는데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 밑에는 상강구위원회, 중강구위원회, 하강구위원회가 있었고 상강구위원회 밑에는 신흥촌지회, 횡산지회, 19도구지회가 중강구위원회 밑에는 주경동지회, 약수동지회, 대사동지회, 평강덕지회, 왕가동지회, 치부동지회가 하강구위원회 밑에는 도천리지회, 서강성지회, 용천리지회, 요방자지회, 14도구지회, 신방자지회, 대호상지회, 탕성리지회, 8도구지회, 9도구지회, 천상수지회, 13도구지회, 통정리지회, 12도구지회, 난천리지회가 있었으며 각 지회밑에는 수많은 분회들이 조직되어 있었다.

이는 장백현의 모든 마을들에 조국광복회조직이 뿌리내리고 광범위한 군중이 거기에 결속되었음을 말해준다.

–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원군활동을 힘있게 벌여 항일대전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 조국광복회 조직들은 회원들과 광범위한 애국적 민중을 발동하여 식량과 피복, 의약품을 비롯한 군수물자들을 구입하여 조선인민혁명군에 보내주었다.

실례로 1936년 9월부터 1937년6월까지의 기간에만도 장백현의

* 신흥촌에서는 3백여말의 쌀, 2백컬레의 솜버선, 150m의 광목, 기타 의약품과 필수품을
* 지양개에서는 쌀 3백여말, 밀가루와 감자가루 수백말, 양복 3백여벌, 지하족 3백여컬레, 의약품 여러 상자들
* 도천리에서는 광목 800여m, 지하족 6백여컬레, 쌀 수백말과 의약품과 문방구를 비롯한 막대한 량의 원군물자를 혁명군에 보내주었다.

* 일상적으로 적정자료를 내탐하고 종합하여 제때에 혁명군에 통보해주었다. 조국광복회조직과 그에 망라된 군중들은 혁명군의 귀가 되고 눈이 되었던 것이다.

* 조직에서 교양육성된 우수한 청년들을 추천하여 혁명군에 입대시켰다.

– 조국광복회조직들은 혁명군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원호하는 한편 광범위한 군중을 일제를 반대하는 대중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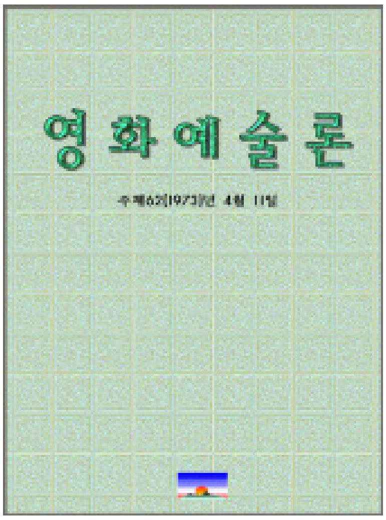
구국전선
Http://www.ndfsk.dyn.to



영 화 예 술 론

주체62(1973)년 4월 11일

차 례





통일여명 편집국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여 그간 입력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 중의 하나인 <붉은 해발 아래 항일혁명 20년>의 차례입니다.

붉은 해발 아래 항일혁명 20년



차 례